

홈 > 뉴스 > 기획 > 신탐라순력도

오문식 의귀리장 "김만일 기념관 건립하겠다"

데스크승인 2014.07.28 좌동철 기자 | roots@jejunews.com



"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큰 재산이던 말을 아낌없이 바쳤던 김만일의 초상화를 제작하고, 동상을 세우겠습니다."

오문식 의귀리장(50)은 "말산업 특구 선도마을로서 김만일 기념관 및 테마공원 조성은 말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"이라며 "앞으로 추진될 기념관 건립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"고 말했다.

그는 "제주에 유배를 온 인물에 대한 공적비와 기념관을 세우는 것에 앞서 제주의 인물에 대한 업적과 활약상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간과해 온 것 같다"며 "김만일의 생애와 공적을 알리는 것은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오 이장은 "의귀리가 말산업 특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형물과 테마 가로등을 설치하고, 마을

의 역량을 결집해 힐링을 위한 말레길(馬路) 개장과 재활승마병원 유치에 나서겠다"고 말했다.

© 제주신보(<http://www.jeju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